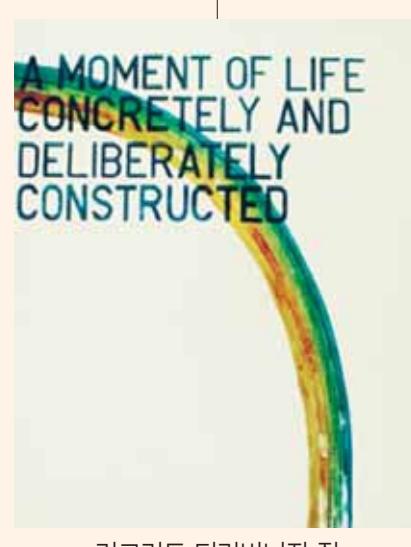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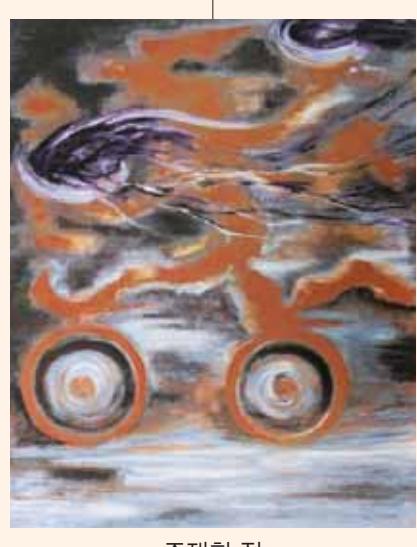


백현진 작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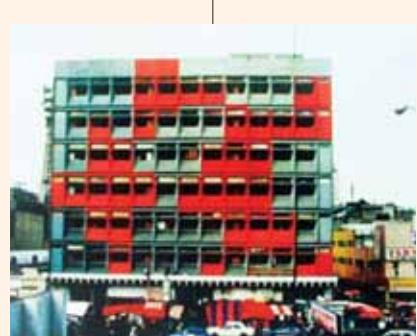
주재환 작

## 올 가을 거실에 작품 한점 걸어볼까



수퍼플렉스 작

유명 작가의 '진짜' 그림을 산다는 것, 평범한 시민들에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림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던 셀러리맨이나 주부라면 더욱 그렇다. 막상 시도를 하려다가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작품 가치가 적정한지 궁금증 투성이이다.



안톤 비도콜 작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아울러 안톤 비도콜은 이플렉스 대표나, 마뉴엘 오카포(1997년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등 '월드프리미어'급 작가들의 작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비엔날레 기간 크롬 턱구대를 전시한 작가다.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이 작품, 얼마나 될까=집에서 보관중인 '명품'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기회도 생긴다.

미술품 경매 전문업체인 A옥션은 오는 12월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열리는 제 17회 광주 미술품 경매를 앞두고 출품작을 찾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져온 오프라인 경매인데다, 평균 낙찰률도 70%가 넘고 낙찰 총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경매다. 11월 2일까지 작품을 위탁하면 된다.

특히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작품 판매를 의뢰한 위탁자와 협의를 거쳐 경매 시작자를 결정하고 참여자들의 경쟁을 통해 낙찰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집에서 보관중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미래 주류 예술가로 떠오를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적잖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도 미술 투자 한번 해볼까=평소 '그림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눈여겨보면 '휑재' 할 기회가 적지 않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문가들 말로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팔고 있는데다, 144점의 작품을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음 가을, 벽에 걸어둬도 좋을, 훗날 '대박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를 '보석'을 견저볼 흔치 않는 기회다.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의 기념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 '신세'였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에는 전 세계 대안공간에서 내놓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 144점이 전시돼 있다. 대안공간들이 김선정 비엔날레 공동책임감독과의 인연 등으로 선뜻 내놓으면서 미술시장 시세보다 저렴하다.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이며 올해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했던 독일 작가 토마스 바이틀레는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만든 작품(29.7×42cm)은 고작 40만7000원에 불과하다.

에르메스상 수상작가인 설치미술가 구정아씨의 2005년 작품(59.3×83.8cm)도 129만원대에 나왔다. 구씨는 파리 풍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하는가 하면, 광주 비

###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서

### 전세계 대안공간작품 144점 판매

### 저렴하고 다양한 작품 구매 기회

### A옥션, 12월 오프라인 경매

### 소장작품 진품여부·가치 확인

### ■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26일 200회 공연

## "힘들지만 감동받는 관객 보면 힘이 납니다"

지난 2008년 연극인 박윤모(59·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씨는 딱 10년만에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다시 무대에 올렸다. 87회의 공연을 마친 후 긴 휴지기에 들어갔던 그는 여러 차례 공연을 계획하고 연습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대본을 뒤집어썼다.

1시간 30분을 훌로 이끌어가는 모노드라마는 만만찮은 내용이 필요한 장르다. 지난 1998년 초연할 때보다 나이도 많아졌고, 자신의 연기를 바라보는 이들의 기대감도 높아 '득보다 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연극 인생 30년을 맞아 지난 1998년 광주 드맨 아트홀에서 '여보, 국가 달아란 이름으로 초연한 후 서울 대학로 세설극장에서 장기간 공연했던 작품이다. 어느덧 10년이 흘러 20년을 연극판에서 보냈고, 의미있는 작업을 생각하던 그는 '한번 지킬 려 보자'는 생각으로 원작자인 소설가 헌승원에게 시대에 맞게 희곡을 고쳐 줄 것을 부탁했다.

영킨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이후 '아버지'는 끊임 없이 관객들을 만났다. 광주를 기반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 강릉, 광양 등 국내는 물론이고,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드디어 오는 26일 광주 궁동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200회를 맞이하게 됐다.

박씨는 조대극회 시절에 무대에 올렸던 '도적들의 무도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소작자', 그리고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해 준 작품으로 꼽았다.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200회네요. 무대에 설 때마다 항상 힘들기는 하지만 끝나고 날 때마다 절격려해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또 힘이 납니다."

헌승원의 유일한 희곡인 '아버지'는 고히



고을건강타운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초청,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0회를 기념해 이이남 작가는 '아버지' 200회 공연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엮은 미디어 아트 '아버지'를 제작했다.

박씨는 환갑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버전의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 금남로에서 태어나 40여년 동안 연극 배우로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모노드라마다.

현재 전국연극제에서 수차례 희곡상을 수상한 김창일씨가 희곡작업을 진행중으로, 박씨는 자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페이퍼를 작가에게 전했다.

"이번 200회 공연이, 그리고 내년에 시작할 공연이 제 연극 인생에 또 다른 도약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혁연으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이죠. 힘들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의 062-511-275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23~26일 궁동극장 노인무료 초청

### 이이남 작가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 내년엔 자전적 인생 담은 아버지 제작

연예 열린 연희장에서 주인공 김오현이 11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질편한 전라도 사투리로 살아온 내력과 자랑이 되기도 했고, 속을 쐬이기도 했던 자식들의 삶을 풀어내는 스토리는 우리 시대 부모 모두의 이야기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친구인 연극배우 이상용씨와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섰고, 극단 까치놀(연출 김영록)에 의해 다수의 배우가 출연하는 버전으로 현재 공연중이다. 까치놀의 작품은 지금까지 강진·인천·서울·여수에서 공연을 가졌고, 오는 11월 8일에는 장흥문화회관에서, 12월 25일에는 화순에서 공연된다.

23일~26일 오후 3시30분, 27일 오후 5시 광주 궁동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빛

## 열정이 숨쉬는 화려한 선율

### 마립바·기타 협연... 광주시향 내일 연주회

마립바,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조합이다.

'스페인의 불꽃'을 주제로 18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열리는 광주시향교향악단 연주회는 남미와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곡을 통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다.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기타를 위한 아랑그에즈 협주곡'은 기타리스트 김우탁(13·예원학교 재학)군이 협연한다. 6살에 기타를 시작한 김군은 서울바로크



마립바 김은혜 기타 김우탁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또 비제의 '가르멘 모음곡 1번'과 드 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도 들려준다. 티켓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국제보청기**

**창업 30주년 30% 할인봉사 OFF SALE**



SINCE 1982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頓(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 - 9940 총장점 062) 227 - 9970  
 목포점 061) 262 - 9200 장흥점 080) 222 - 9975  
 서울점 02) 765 - 9940 순천점 061) 752 - 9940

주류서비스

150여 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 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공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Be natural  
Be delicious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 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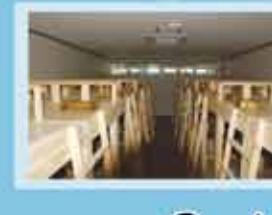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 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 이상): 29,000원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